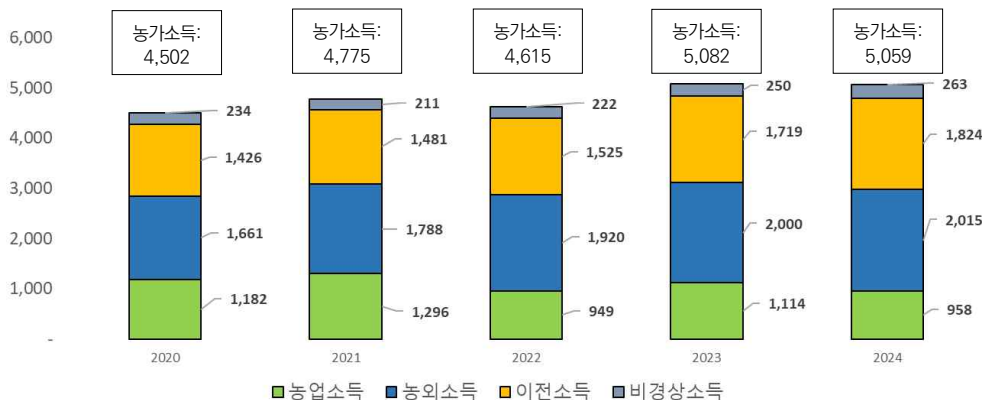


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

- 2025년 5월 23일 통계청은 「2024년 농가경제조사」 결과를 발표하였음. 농가소득은 5,059.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(0.5%, 23만 원)한 것으로 나타남.
 - 농가소득 중 농업외소득(0.7%), 이전소득(6.1%), 비경상소득(5.5%)은 증가하였지만, 농업소득(-14.1%)은 감소
 - 소득 종류별 비중은 농업외소득(39.8%), 이전소득(36.0%), 농업소득 (18.9%), 비경상소득(5.2%) 순
- 농업소득은 957만 원*으로 전년 대비 14.1%(156만 원)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총수입이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였기 때문임.
 - *농업소득(957만 원)=농업총수입(3,684만 원)-농업경영비(2,727만 원)
 - 농업총수입은 3,6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.8% 감소하였고 농업경영비는 2,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.8% 증가
 -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총수입 감소를 쌀값 하락과 한우·육계 도매가격 하락 및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 수 감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
 - 농업경영비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사료비가 전년 대비 5.5% 감소했지만, 비료비 상승 (전년대비 1.4% ↑),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(전년 대비 9.6% ↑)와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증가(전년 대비 5.3% ↑) 영향으로 전체 경영비는 전년 대비 1.8% 상승
- 농업외소득은 2,0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.7% 상승하였음. 겸업소득이 6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.1% 감소했으나 근로수입·임대수입 등 사업외소득이 1,358만 원으로 2.7% 증가하여 전체 농업외소득은 증가함.
 - 농업인의 겸업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·도소매업의 생산 감소, 농촌관광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여행 지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겸업소득이 감소하였고, 명목임금 상승 영향으로 사업외소득은 상승
- 이전소득은 1,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.1% 상승하였음.
 - 공직직불금, 농업인수당 등 공적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, 국민연금 수급 농업인 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이전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.

■ 2020~2024년 농가소득 추이(소득종류별) ■

단위: 만 원



*출처: 통계청(2025.05.23.)

농림축산식품부(2025.05.23.)

세계 경제 동향

● 중국 5월 기준금리 3%로 0.1%p 인하 | 2025-05-20 조선일보; 매일신문

- 2025년 5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(LPR)를 3.1%에서 3.0%로 0.1%p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.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(LPR)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만임.
 - 대출우대금리(LPR)는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 평균치로, 인민은행이 LPR을 공시하면 모든 금융 회사가 대출에 참조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
 - 지난 5월 7일 중국 정부는 내수 및 부동산 침체 지속, 미국의 관세부와 조치 등에 따라 중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,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거시경제 기조를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 완화로 설정한 바 있음.
 - 중국은 올해 거시경제 기조를 정부 재정투입의 증대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지급준비율과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설정
- ❖ 이번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됨.

■ 2024~2025년 5월 중국 기준금리 추이 ■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0.9%로 둔화 ■ 2025-05-23 한국은행; 연합뉴스

- 2025년 5월 23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.9%로 3개월 연속 둔화되었다고 발표하였음.
 -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.9%로 2023년 11월(0.6%) 이후 17개월 만에 0%대 상승률 기록
-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COVID-19 발생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, 2022년 6월 10.0%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음. 이후 1%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상승률은 2024년 5~7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년 8월부터는 다시 1%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.
-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, 전력·가스·수도 및 폐기물과 서비스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.7%, 1.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세부품목 중에서는 농산물(-8.0%), 석탄 및 석유제품(-7.9%), 금융 및 보험(-5.8%)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둔화되었고, 국제유가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.

■ 2024~20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추이 ■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 농림수산성 쌀 유통 안정화 대책 실시 | 2025-05-16 일본 농림수산성 ; NHK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 평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쌀 유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함(주간브리프 2025 Vol.11.).
- 농림수산성은 정부 비축미 유통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의 대책에 신규 대책을 더해 ‘쌀 유통 안정화 대책 패키지’를 구성함.
- ‘쌀 유통 안정화 대책 패키지’는 비축미 조기 판매, 비축미 추가 공급, 2025년산 쌀 비축미 매입 중단 등을 통한 정부 비축미 시장 공급 촉진 방안과 소비자를 위한 쌀 유통 현황 정보 제공이 추가된 신규 대책임.
-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, 3개월간 10만 톤의 비축미 유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쌀 부족 현상 해소 기대

■ 일본 농림수산성 쌀 유통 안정화 대책 ■

구분	대책 내용
정부 비축미 유통 효율화	[신규] 조기 판매계획을 수립한 소매업체 대상 정부 비축미 입찰 우선 배정
	지방 및 중소 소매업체 공급을 위한 도매업체 간 정부 비축미 거래 허용
	정부 비축미 시장 조기 공급을 위한 관계자 대상 협조 요청 -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(정부 비축미 대부분 매입)에 도매업체와 연계한 조기 판매 대면 요청
쌀 공급 체계 강화 (정부 비축미 포함)	[신규] 2025년 5월, 6월, 7월 매달 10만 톤 정부 비축미 입찰 실시 -2025년 7월 입찰 물량은 수급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
	[신규] 환매조건부 비축미의 환매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* *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한 비축미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‘환매 기간’ 연장
	2025년산 쌀의 산지별 생산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발표 -4월 말, 6월 말의 상황을 취합하여 각각 5월, 7월 중으로 발표
	[신규] 2025년산 쌀은 수급 환경에 변화가 없는 한 정부 비축미로 매입 중단, 환매 중단 식량 공급 부족시 「식량공급관리사태법」기본방침에 따라 정부 비축미로 대응하되, 국민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량 공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MMA(Minimum Market Access, 의무수입 물량) 쌀 물량 활용
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	[신규] 매주 소매점 가격(POS 데이터) 공개, 정부 비축미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(혼합미)의 시장 점유율·평균 가격·매장 가격 사례 공개, 비축미 판매 물량 보고, 집하업자 및 도매업자의 유통단계별 비용·이익 공개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- **농식품부,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 도입 본격화** ■ 2025-05-16 농축유통신문 ; 한국농어민신문 ; 한국농정
 - 2025년 4월 24일 농식품부는 농협 전국통합RPC운영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쌀 임의자조금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.
 - 정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, 미국·중국·태국 등 MMA(의무수입물량) 쌀이 본격 시판된 2006년부터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쌀 농가가 참여하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검토해왔음.
 -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은 업계 내 이견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했음. 이에 RPC(미국종합처리장) 중심의 임의자조금 조성으로 쌀 소비 감소에 우선적 대응 방침 발표
 - 5월 13일 농협RPC전국협의회·한국RPC협회·전국RPC협회 등 3개 RPC단체로 구성된 한국쌀산업연합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됨.
 - RPC 중심의 쌀 임의자조금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추진 시 필요했던 ‘25만 쌀 농가(50만 농가의 50%)의 동의’를 ‘60개 RPC(600개 RPC의 10%)의 동의’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음.
 - 또,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역시 14명(3개 RPC 단체 임원)의 인원으로 ‘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’의 구성 요건 충족
 - 쌀 자조금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.
 - 농수산물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용도는 농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, 교육, 정보제공, 자율적 수급 안정, 유통구조 개선, 수출 활성화 사업, 품질·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등임.
 - 농식품부와 한국쌀산업연합회는 5월 중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, 추후 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계획
 - 다만, 이번 쌀 임의자조금 우선 시행에 대하여 쌀 생산 단체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·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자조금 취지에 공감했으나, 전국쌀생산자협회·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부정 의사 표명